

# 산, 계곡, 숲, 호수를 거느린 청원땅

김 동 정 수필가 · 여행작가

**여**름이 활짝 열렸다. 물과 바람과 숲을 거느린 청원땅은 이맘때쯤 찾으면 제격이다. 청원땅을 소개하는 관광안내도 첫 머리에는 이 땅을 이렇게 알리고 있다. 역사와 혼이 살아 숨쉬는 21C 첨단 지식산업의 중심. 청원땅을 한번쯤 둘러본 이들 이라면 이런 홍보 글귀가 그리 낯설지 않게 다가올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신이 내린 자연의 아름다움을 들 수 있겠다.

경부고속도로 청원 나들목을 빠지면 대청댐으로 가

는 이정표가 보인다. 중부 내륙의 생명수로 오랜 세월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대청호(대전과 청주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는 사철 독특한 모습으로 여행자들을 반긴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옥빛 물과 호수 위에 섬처럼 떠있는 야산, 그리고 호수와 조화를 이룬 쪽빛 하늘이 그렇게 청신할 수 없다.

대청호는 금강의 한가운데 댐을 막아 만들어진 거대한 호수로 중부권에서는 충주호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수많은 철새와 텃새들의 쉼터로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언제 찾아도 푸근하고 넉넉하다. 상류는 낚시가 금지돼 각종 민물고기(쏘가리, 자가사리, 붕어, 잉어, 향어, 피라미 등등)들의 보금자리다. 이런 신이 내린 천혜의 터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부근에 대통령의 별장인 청남대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3년 전 4월 청남대가 전격 개방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청남대 개방은 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사로 삶을 이어가던 주민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민박을 한다거나 농산물을 팔아 살림에 보태고 있는 것이다.

대청호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호반도로는 우람한 산과 수목이 그림자 되어 따라오는 모습이 환상적이며 특히 전망대에 오르면 대청호를 더욱 실감나게 볼 수 있고, 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은 대청호를 찾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대청호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산자락에 들어앉은 현암사에 올라야 한다. 현암사는 신라 때 세워진 자그마한 암자로 가파른 철계단을 5-10분 정도 힘들게 올라가야 한다. 암자에 발을 디는 순간, 그러나 힘겨움은 금세 보람으로 바뀐다. 절 경내에서 바라보는 대청호는 정말 아름답다. 화가라면 한 폭



▲ 청원(숲체험교실이 열리는 미동산수목원)



의 수채화를, 시인이자면 멋진 시 한 수 읊고 싶어진다. 남쪽으로는 금산, 서쪽으로는 계룡산, 동쪽으로는 속리산 줄기가 이어지며 호수 한가운데 있는 산 뒤편엔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청남대가 숨어 있다. 호수를 한바퀴 돌아 보은과 옥천으로 이어지는 건너편은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화남면 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가로수 터널이 그림 같다.

현암사를 지나 5~10분 정도 달리면 왼쪽으로 문의 문화재단지가 보인다. 지난 79년 대청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문화재를 한데 모아 옮겨 온 것인데, 조상들의 생활모습과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양성산(해발 378미터) 허리에 조성된 이 문화재단지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 조상들의 삶과 얼을 되살리고 배우기 위한 역사의 교육장이다. 3만여 평의 부지에 조선시대 객사 건물인 문산관을 비롯하여 전통가옥, 민속자료전시관 등을 배치하였고, 대장간, 장승, 연자방아, 주막집, 토담집, 고인돌, 솟대, 성황당 같은 민속유물도 원형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문화재단지가 들어선 양성산은 경치가 빼어날 뿐더러 정상에서는 대청댐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등산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한때 일모산 또는 연산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양성산에는 신라 자비왕 17년(474년)에 축성한 산성이 남아 있다. 이 산성에서 고려와 후백제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성안의 연못에서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청원군의 동쪽, 괴산군과 맞붙은 미원면으로 간다. 청주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은 약 12km의 도로(운암리-어암리)를 따라 9개의 절승이 기다리고 있다. 이름 하여 옥화9경이다. 달천천을 따라 펼쳐지는 아기자기한 계곡과 절승마다 주저리주저리 얽힌 전설은 모처럼의 여행을 더욱 설레게 한다. 첫 번째로 만나는 청석굴은 옥화 9경 중 제1경이다. 구석기 시대의 주거지로 찧개와 굵개, 볼록날 등의 유물이 발견된 곳으로 옛날 굴 안에서 용이 나왔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굴 안으로 들어가면 더운 여름철에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다.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은 굴 천정에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툭툭 떨어진다. 청석굴 앞으로는 달천이 유유히 흘러가는데 때가 때인지라 주말이면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 청원(각종 옛 문화재를 모아놓은 문의 문화재단지)



▲ 청원(구석기시대 주거지였던 청석굴)



▲ 청원(용소 앞 달천은 물놀이 장소로 그만이다)

제2경은 달천변에 있는 용소.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던 한 여자가 깊은 연못에 살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말았는데 이를 눈치 챈 용이 그만 떨어져 이무기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움푹 파인 암벽 아래로 흐르는 물은 달천 중에서도 수심이 가장 깊다. 여름철이면 용소 인근 달천은 발을 담그고 노는 피서객들로 떠들썩해진다. 달천은 물이 맑아 다슬기를

비롯해 각종 민물고기가 많이 서식한다. 조선 초 품천(品泉·물맛을 평가하는 일)의 일인자인 이행은 달천의 물맛을 조선 제일로 쳐주었고 이중환도 택리지에서 명나라 장수가 이곳의 물맛을 보고 자기네 나라 여산의 수렴약수보다 낫다고 했다는 말이 전한다.

용소 옆으로 난 도로를 따라 조금 더 가면 옥화 3경(천경대)과 4경(옥화대), 5경(금봉)을 차례로 만난다. 달빛이 맑은 물에 투영되어 마치 하늘을 비추는 거울 같다는 천경대는 피서객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인접한 목화대와 더불어 잘 어울리는 명소이다. 제6경인 미원면 금관리의 금관숲은 수령 3백년은 됨직한 상수리나무들이 울창하게 숲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3~4백 명이 야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터가 넓다. 길은 금관숲을 기점으로 괴산군 화양동계곡과 보은군 산외면 쪽으로 갈라진다. 금관숲에서 계속 찾길을 따라가면 제7경 가마소뿔, 제9경 박대소 등으로 갈 수 있다. 가마소뿔은 이름도 신비하지만 그에 얽힌 전설 때문에 예사롭지 않다. 옛날에 막 혼례를 치른 신랑과 신부가 이곳을 지나다가 신부가 타고가던 가마가 흔들리면서 그만 물 속에 빠져 죽었는데 이를 서러워하던 신랑도 함께 뛰어 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옥화9경의 제8경은 계원리에서 신선봉을 바라보는 경치를 말한다. 해발 630m의 신선봉은 신선이 놀았다 해서 이름이 붙었다. 제9경인 박대소(미원면 어암리)는 달천변의 마지막 절경으로 푸른색의 청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깊은 못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청원땅 중에서도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미원면 소재지에 휴양림과 수목원도 있다. 청원군에서 운영하는 옥화자연휴양림은 다양한 평형의 산막(5평형 10실, 7평형 5실, 9평형 3실, 27평형 2실, 30평형 1실)과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을 위시해 원두막, 산책로, 자연관찰로 등이 갖춰져 있다. 가족형 산막 이용료는 2만 5천원~4만원선이다. 특히 계곡수를 이용한 물놀이장은 인기 만점이다. 문의 : 휴양림관리사무소(043-251-3424)

다양한 나무가 자라고 있는 미동산수목원은 숲 체험과 생태학습 체험에 제격이다. 단풍나무원, 유전자보존원 같은 전문적인 시설이 들어서 있고 산림박물관, 목재문화체험장, 고라니관찰원, 온실, 야생화전시장 등의 시설도 썩 괜찮은 편이다. 미동산수목원에서

는 11월까지 숲과 계곡에 대한 체험은 물론 자연을 소재로 하는 각종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동산 자연학습 체험교실은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에는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넷째 주 토요일에는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단체의 경우에는 교육 15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개인이나 가족단위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육 10일전까지 인터넷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 미동산수목원(043-220-5584).

● 여행수첩(지역번호 043)=일단 대전이나 청주까지 간다. 대전역-대전댐 : 시내버스(730번) 이용(40분 소요)중점 하차, 05 : 30-22 : 40, 10분-30분 간격 운행. 청주대청댐 : 시내버스 이용(30분 소요) 1시간 간격 운행. 청주에서 승용차로 약 20분 소요되며, 청주에서 문의행 시내버스가 30-40분 간격으로 운행. 청주에서 대청댐 방면으로 가다 팔각정 전방대 지나면 바로 현암사(042-932-2749). 승용차로 약 30분 거리이며 매시간마다 청주대청댐-신탄진간 시내버스 운행. 대전고속버스터미널(042-623-8255.6), 대전역(042-252(253)-7788, 청원군청(www.puru.net, 문화관광담당(251-3223), 충북도청 홈페이지(www.provin.chungbuk.kr), 문의문화재단지(251-3545), 문의면사무소(254-7732), 청주고속버스터미널(256-1600), 청주역(232-7788), 청남대 방문은 문의관광안내소(220-5677)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일분 입장권을 판매한다. 관광안내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 운행. 입장요금 개인 5,000원 단체 4,000원. 중부고속도로 증평나들목에서 511번 지방도로로 갈아 타면 충북 청원군 미원면 소재지다. 청주시→25번 국도→보은방면→미원삼거리→19번국도→보은방면→운암리→옥화9경.경부고속도로→청원나들목→청주방향 2km→공군사관학교(대청댐방향으로 우회전)→7~8km→화당삼거리→청주방향 1km→고은삼거리→19번국도→보은 방면→운암리→옥화9경, 중부고속도로 증평나들목→조청약수→ 511번 지방도→미원면수산리→미원리→19번국도→운암리→옥화9경. 청주시내에서 금관리 가는 버스 이용. 옥화대 하차(약 1시간 20분 소요), 청주시내 또는 청원군내 숙박시설 이용. 금관숲에서 야영 가능. 

